

< 성 명 서 >

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합니다.

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햇볕정책의 최우선이었습니다. 노무현정부는 북핵불용을 대북정책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.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안보와 북핵 해결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

어제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또 다시 한 단계 악화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이미 서해바다는 전운이 감도는 대결의 바다이고 비무장지대는 최대의 전쟁위험지역이 되어있습니다.

지금 직면한 안보위기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

튼튼한 안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어려운 때일수록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

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평화의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미국, 중국 등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.

튼튼한 안보와 북핵불용을 기본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위기일수록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두 바퀴를 소중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.

2016. 1. 7.

김동철, 김한길, 문병호, 안철수, 유성엽, 임내현, 황주홍